

|| 성도의 교제 || 복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하 4:10)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2. 2026 년 표어: 복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역대상 4:10)

3. 2026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4. 지난 주일 폭설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5. 2025 년 헌금 영수증을 2 월 8 일 주일에 나누어 드립니다.

6. 토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역대상 4:10 (2026 년 1 월 성경 암송 구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8.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http://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 채널



캐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실 만 한 물 가 교 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6 장 (통 8)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53. 시편 121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539/540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1 장 (통 346)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역대하 (2 Chron) 32:24-26(OT 702)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기적보다 위대한 은혜, 겸손의 능력  
Grace Greater Than Miracles, The Power of Humility

*찬 송 Hymn	546 장 (399)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하영기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 말씀 노트 || 기적보다 위대한 은혜, 겸손의 능력

오늘 설교에서 함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32:21 (구약 p. 702)

역대하 33:24 (구약 p. 702)

(왕하 20:9)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은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왕하 20: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역대하 33:25 (구약 p. 702)

역대하 33:26 (구약 p. 702)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

2.

3.

## || 목회와 삶 || 권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 오지 마세요!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주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간당 2cm 정도의 눈이 내려서 예상 강설량이 25cm 라고 합니다. 예배 후 성도님들이 집으로 귀가하실 때 어려움을 경험하실 것 같아서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이번 주일에 교회 오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성도님에게 교회에 오지 마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에 권사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다는 눈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설만한 물가 교회는 예배 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1-6 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 주시는 행위는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개의치 않으시고, 오그라진 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당의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막 3:4)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에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을 선택하면, 그들은 안식일의 형식에 매여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호 6:6).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